

20 신학부 보고

제104회기 신학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고창덕
서 기 신종철

1. 조직

- 1) 임 원 : 부장 고창덕, 서기 신종철, 회계 신현철, 총무 홍성현
- 2) 실행위원 : 임은진 맹연환 반석창 오명현 정명선 최종천 천주용 최정호 김윤기 박은식 전형주 김유식 김광이 이명철 정운락 화종부 전대준 이남국 김태일 계성인
- 3) 부 원 : 오종걸 김인범 원용식 정광호 주진만 문오현 노영상 이재운 박시구 심시용 이병택 정용식 김홍재 양병오 이수근 박세광 김한중 김형래 진영화 김 홍 김광진 조호철 이정화 김정열 신하철 김용수 오창욱 이근재 라계동 김우환 양석봉 유장춘 장대영 김광수 김성득 유은규 박원균 현상도 하만봉 이재홍 유창진 류병수 김변호 김형배 공학섭 김병옥 정명근 박종일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9. 9. 25(수) 13:00

☞ 장 소 : 충현교회

☞ 결의사항

- ① 임원 조직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부장 고창덕, 서기 신종철, 회계 신현철, 총무 홍성현
- ② 재정청원과 사업은 임원에게 일임키로 하다.

2) 실행위원회

(1) 제1차 실행위원회

☞ 일 시 : 2019. 11. 13(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104회기 신학부 사업계획서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6월말이나 7월초 제2차 실행위원회의를 소집키로 하다(총회수임사항 최종정리).
- ③ 신학부 실행위원들에게 104회기 신학부에 맡긴 총회수임사항을 발송하기로 하다.
- ④ 잔무 및 신학부 사업계획을(총회수임사항들) 임원회에 맡기고 폐회하기로 하다.



(2) 제2차 실행위원회 및 연구교수 연석회의

- ☞ 일 시 : 2020. 7. 13(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세미나를 순서대로 진행하다.

3) 임원 및 연구교수 연석회의

(1) 제1차 임원 및 연구교수 연석회의

- ☞ 일 시 : 2020. 1. 29(수)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연구논문 완성은 4월 말까지 하기로 하다.
 - ② 논문 분량을 15매로 하기로 하고 주제에 따라 분량을 15매 이상으로 30매 이하로 하기로 하다.
 - ③ 6월초에 자체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 및 연구교수 연석회의

- ☞ 일 시 : 2020. 5. 22(금) 9: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세미나를 진행하다.

(3) 제3차 임원 및 연구교수 연석회의

- ☞ 일 시 : 2020. 5. 29(금) 14: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세미나를 진행하다.

4)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 일 시 : 2019. 9. 25(수)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임원은 부장 고창덕 목사, 서기 신종철 목사, 회계 신현철 목사, 총무 홍성현 목사라 하다.
 - ② 재정은 회의비 800만원, 사업비 2,000만원 재정부에 요청키로 하다.
 - ③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소집키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 ☞ 일 시 : 2019. 10. 23(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임원 포함 실행위원 숫자를 24명으로 조정하다(2명 축소, 오종걸 목사(황해노회), 김인범 목사(강원노회))
- ③ 총회 수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 가. 언론 관련 “뉴스앤조이”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연구 및 강력대응의 건은 반기독교대책위원회로 이첩하기로 하다.
 - 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용어 정리는 연구자 1인을 선정기로 하다.
 - 다. ‘소돔과 고모라 관련’ 건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 건은 연구자 1인을 선정기로 하다.
 - 라. 여성강도권(여성안수)에 관한 신학적 입장 정리는 연구자 7명(각 분야별로)을 선정기로 하다.
 - 마. ‘목회자 진리 수호’ 및 편집인 김문제, 발행인 박형택 씨의 이단옹호의 건은 이단대책위원회로 이첩하기로 하다.
 - 바. 개역개정성경 오역 개정의 건은 대한성서공회에 현의한 내용을 보내고 성서공회의 답변을 듣고 결정하기로 하다.
 - 사. 쿼어신학 관련에 대하여 연구자 2인(기독교윤리, 변증)을 선정하기로 하다.
 - 아. 어린이 세례 받은 자의 성찬 참여의 건은 연구자 1인을 선정하기로 하다.
 - 자. 신학문제 전체에 관련하여 ‘노회, 총회 재판국 교리 재판은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하여 재판하기로 한다’는 기각하고, ‘신학문제는 신학부가 먼저 충분히 검토하여 발의 보고’ 건은 그대로 총회에 상정기로 하다.
 - 차. 차기 신학부 임원회는 11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실행위원회 모임은 11시에 모이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19. 11. 23(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받기로 하다.
- ② 개역개정성경오역개정에 관한 대한성서공회의 답변서를 검토하고 연구자(전문가) 1인을 선정기로 하다.
- ③ 차기 임원회의까지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하기로 하다.
- ④ 신학부 차기 임원회의는 12월 18일(수) 오전 11시에 모이기로 하다.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19. 12. 18(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총회 신학부 수임사항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15명으로 하기로 하다.
- ③ ‘말씀이 육신을 입어’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용어에 관한 교단 신학 정리 / 박응규 교수
- ④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관한 동성애 연구 / 신종철 교수



- ⑤ 여성 강도권과 여성 안수에 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 (각 분야 별로 6인)
이희성 교수, 이국진 목사, 조호형 교수, 라영환 교수, 임종구 교수, 김성태 교수
- ⑥ 퀴어 신학에 관련하여 '퀴어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 (연구자 3인)
황선우 교수, 이풍인 교수, 이상원 교수
- ⑦ 어린이 세례 받은자의 성찬 참여의 건 (3인)
심창섭 교수, 박응규 교수, 김광열 교수
- ⑧ 개역개정 성경 수정 번역에 관한 것으로 “시편 16편 10절 하반절” 해석의 건
(연구자 1명) 김희석 교수
- ⑨ 차기 임원회는 1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기로 하다.
- ⑩ 1월 29일(수) 연구교수진들과의 만남은 오전 11시, 오후 1시로 나누어서 하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20. 1. 29(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수임사항에 따른 연구자수임사항을 점검하다.
- ③ 여성강도권과 여성안수에 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에 관하여 조직신학 라영환 교수를 칼빈대학교 유창형 교수(조직)로 교체하기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

☞ 일 시 : 2020. 3. 26(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뉴스엔조이에 대한 신학적 연구에 관한것은 이미 연구되어지고 있는 총회수임사항들(동성애, 여성안수 등)과 함께 연구하기로 하다
- ③ 4월까지 총회수임사항에 따른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완성은 실무자로 하여금 확인하기로 하다.
- ④ 6월의 자체 세미나는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추후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 ⑤ 총회임원회에 주일예배(주일성수(온라인예배)에 관한 연구에 대한 개혁신학적 입장 논의에 대한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서를 공문으로 보내기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

☞ 일 시 : 2020. 4. 24(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주일 예배에 대한 개혁신학적 입장 논의 허락 요청에 대한 임원회의 회신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총회 수임 사항에 따른 연구자 수임사항 점검은 4월 27일(월)까지 연구 논문을 받기로 하되 개인적인 형편으로 4월말까지 연구 논문 제출이 어려운 교수님들은 5월 20일까지 받기로 하다.

- ④ 신학부 임원회 및 연구자들과의 자체 세미나 일정은 두 번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되 1차는 5월 22일(금) 오전 10시, 2차는 5월 29일(금) 오전 10시에 갖기로 하다. 세미나 장소는 총회 회관이나 충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 두 곳 가운데 정하되 세미나 장소는 실무자에게 맡겨 점검하도록 하다.
- ⑤ 차기 임원회는 5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에 갖기로 하다.

(8) 제8차 임원회

- ☞ 일 시 : 2020. 5. 22(금) 9: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5월 29일(금) 세미나는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다.

(9) 제9차 임원회

- ☞ 일 시 : 2020. 5. 29(금) 14: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신학부에 의뢰한 연구자들(교수, 목사) 연구 논문 원고비(50만원)는 지급하기로 하다.

(10) 제10차 임원회

- ☞ 일 시 : 2020. 6. 16(화)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104회기 신학부 수입사항 원고에 대한 출판에 관해서 서기에 일임하고 출판부와 상의하고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③ 세미나를 위한 실행위원회 소집은 7월 13일(월) 오전 11시에 모이기로 하다.
 - ④ 총회 보고를 위한 신학부 임원세미나(1박 2일)는 진행하기로 하고 날짜와 일시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다.

(11) 제11차 임원회

- ☞ 일 시 : 2020. 7. 13(월) 10:3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신학부 실행위원회 및 세미나는 유인물대로 진행하기로 하다.
 - ③ 연구 논문 발제하고 제출하면 목사, 교수님들에게 A4 1장 요약본을 7월 18일(토)까지 받기로 하다.
 - ④ 총회보고를 위한 차기 신학부 임원회는 8월 10일(월)-11일(화) 갖기로 하다. 장소와 시간은 신학부장과 서기에 일임하기로 하다.



(12) 제12차 임원회

☞ 일 시 : 2020. 7. 29(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동성애 연구 수임을 받은 신종철 교수는 황선우 교수의 논문으로 대처하기로 하다.
- ③ 총회보고용 책자를 2권으로 하되 출판부에 의뢰하기로 하고 쿼어 신학 부분은 출판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의뢰하도록 하다.
- ④ 총회보고서 최종완성본 준비를 위해 8월 10일(월)-11일(화) 갖기로 하고 수원 북부교회에 찬조 협조문을 발송하기로 하다.

(13) 제13차 임원회

☞ 일 시 : 2020. 8. 10(월) 15:00

☞ 장 소 : 수원북부교회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받기로 하다.
- ② 이상원 교수 동성애 관련 연구 논문을 총회 보고서에 실기로 하고 신학부 보고 책자에 삽입하기로 하며 원고비는 차기 105회기 신학부에서 원고비를 지급하기로 하다.
- ③ 105회기 신학부 사업 내용과 예산안 및 신학연구위원회 구성 청원과 여성강도권에 대한 연구연장 청원,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표방하는 선언문 작성, 총회 성경표준 주석 편찬 및 발간을 청원하기로 하다.

수임 안건 연구 결과보고

1. 여성 안수 및 여성 강도권에 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 건

1) 여성안수 및 여성 강도권 제1연구

(이희성 교수, 구약의 관점에서 본 여성 사역자의 지위)

교회 내에서 여성 사역자의 기능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사람이며 존재와 인격에 있어서 우월이나 열등이 없이 다 귀중하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독립적이나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한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기능에 있어서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라는 서로 다른 구분이 있으며 서로 동등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각 위격은 동등하시나 서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존재하듯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동등하나 질서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살펴보면 제사장의 직임을 담당하는 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일부 레위인들 중에서 감당하였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다. 따라서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직임은 남성이 감당해야 했으며 제사장의 결혼 규례를 살펴봐도 다 남성 제사장에 관한 규정들만 있다. 하나님의 제단에 봉사하는 자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장자들 가운데 흠이 없는 자들로 제한한다. 제사장과 오늘날 목사의 직임 사이에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무상의 유비적 관계와 연속성이 있다. 만약 이를 근거로 여성 사역자들의 안수 문제를 논의한다면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구약 성경의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구약에는 여선지자들이 존재했다.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다. 제단 봉사자가 아닌, 즉 제사장직이 아닌 선지자직이나 이스라엘의 위기 시에 활약했던 사사 같은 기능은 여성들도 감당했다. 구약에서 여성 선지자로 알려진 자들은 미리암(출 15:20), 드보라(삿 4:4), 노아디아(느 6:14), 이사야의 아내(사 8:3) 등이 있다. 미리암은 모세의 동역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분수를 넘는 지위에 대한 욕심과 반목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다. 드보라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선지자이며 사사이다. 그녀는 바락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홀다는 여선지자로 우상을 섬기며 배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하는 요시야 왕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키게 했다. 그녀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력자였고 여선지자였다. 이처럼 여성들도 역사의 위기의 순간이나 특별한 시기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은 예들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금하지 않으셨다. 구약의 예로 보건대 오늘날 여성 사역자들이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제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여성 사역자들의 은사와 영적인 리더십에 따라 담임 목회자와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이다.

2) 여성안수 및 여성 강도권 제2연구

(조호형교수, 디모데전서 2:8-15에 나타난 특수성(特殊性)과 보편성(普遍性)에 대한 고찰)

신약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단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디모데전서



2:8-15일 것이다. 아마도, 이 단락에 나타난 바울의 권면이 그 당시에만 적용 가능한 특수성(特殊性)을 갖는지 아니면,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성(普遍性)을 갖는지에 대한 이슈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 단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한국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주석의 방법으로 이 단락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 단락을 접할 때, 이 단락의 배경이 예배의 상황인지, 이 단락에서 바울의 권면의 진의는 과연 무엇인지 여러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요 질문은 그 당시에만 적용 가능한 특수성(特殊性)과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성(普遍性)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단락의 전후 문맥뿐만 아니라 단락이 속한 디모데전서의 전체 상황을 고찰하면서, 다음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먼저, 이 단락과 이 단락이 속한 편지 전체의 상황은 공적인 예배의 상황이다. 2:1-7에서 주로 다루어진 기도의 상황이 2:8-15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8절의 접속사 ‘운’(οὖν, “그러므로”)이 보여준다. 2:8에서 시작된 공적 모임의 기도의 상황은 2:9의 부사 ‘호사우토스’(ὡσαύτως, “이와 같이”)를 통해 계속된다. 즉, 9절은 파격 구문(anacolouthon)으로서 ‘호사우토스’는 8절의 ‘볼로마이 프로세ύχεσθαι,’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의 대용(代用)으로 나타난다. 둘째,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게 새 시대 백성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바울은 2:1-7의 주요 주제인 기도를 2:8-10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남자들이 손을 드는 자세는 기도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양식에 관련된다. 여자들의 옷과 행실은 단순히 외적으로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내적인 태도 또한 포함한다. 셋째, 예배의 상황 속에서 여자에 대한 권면은 더욱 확장된다. 바울은 2:13을 창세기 2장, 14절을 창세기 3장에 연결하면서, 하와보다 아담의 시간적인 우선성을 주장하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교회까지 적용하면서 일종의 원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2:8-15는 특수성과 보편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문맥 전체 안에서 보편성이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본 단락에서 다루는 주제가 보편적이다. 바울은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남자와 여자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이 단락 뒤에 나오는 3장 역시 교회 지도자의 자질을 다루는데, 이것 또한 에베소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본 단락에 등장하는 단수와 복수를 나타내는 대명사들이다. 복수 형태의 “남자들”(8절)과 “여자들”(9절)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키고, 단수 형태의 “여자”(12절)와 “남자”(12절)는 일반적인 원리를 가리킨다. 2:13-15에 나타나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 차이가 있는데, 복수는 에베소 여자들을, 단수는 일반적인 원리를 함축한다. 또한, 2:12의 ‘우크 에피트레포’(οὐκ ἐπιτρέπω,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라는 표현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일인칭 대명사는 절대적인 권위를 내포하는 경향이 있고 보편적인 진술을 만든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물들을 기초로 해서, 필자는 2:8-15의 보편적인 성격과 함께, 바울의 권면이 영속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처럼, 2:8-15의 보편성과 영속성은 여성 안수와 강도권 허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示唆)한다.

3) 여성안수 및 여성 강도권 제3연구

(이국진 목사, 여성 안수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성에게 안수하여 성직을 부여하거나 강도권을 허락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국제적인 관계나, 우리들의 전통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sola scriptura). 또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느 한두 구절에 의존하여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tota scriptura).

초대교회에는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다. 우선, 비비는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다(롬 16:1). 여자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딤전 3:11에 기록되어 있다. 초대교회의 집사는 단순히 구제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에서(행 8:12-13, 36-39)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사역을 했었다. 딤전 5:2의 “프레스비테라스”는 “여자 장로”로 번역할 수도 있다.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가르치기도 하였다(행 18:26). 또한, 롬 16:7은 개정 개역처럼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있다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유니아가 사도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도였다고 번역할 수도 있다. 크리소스톰과 오리겐은 유니아를 여자 사도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딤전 2:11-15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고, 고전 14:34-35는 여자는 잠잠해야 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여성의 역할이 제한된 것이 원칙인데,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은 예외였다고 보는 방법이다. (2) 여성들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데, 딤전과 고전의 말씀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해석에는 모두 단점이 있다.

만일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여성들에게는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은 난점들이 있다. (1) 여자 선교사에게 성례권을 인정한 것 등등을 포함하여 우리 교단이 이러한 원칙에 반하여 시행했던 모든 것들을 폐지해야 한다. (2)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것은 당대의 문화적 상황에 따른 명령이라고 해석하면서, 왜 이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3) 여성이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구약과 초대교회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원칙을 깨뜨리셨는지, 왜 지금은 그런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한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이 구절들을 당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에베소 교회에는 여성들이 집마다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곤 했었다(딤전 5:13). 어리석게 미혹을 당하기도 했었다(딤후 3:6-7). 그래서 깨닫지 못한 채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상황에서 여성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옛날 하와로 인해 타락이 일어난 것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딤전 2:13-14). 또한,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에서 여성들이 남자들을 주관하며 종교 제의를 하곤 했었는데, 그런 습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자들을 주관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경적 원리는 주관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고 겸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전 14:34-35는 교회 안에서 가정의 대표인 남편이 한 말을 아내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질문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서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예배 중에 잘 못 알아듣는 상황 속에서 서로 질문하고 말해서 예배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들은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남성과 여성이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창조의 원리에 근거하여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 같은 구절들을 보다 더 자세히 해석해야 하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직제는 성경에 분명히 있는 직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도사, 서리 집사, 권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구역장이나 목자 순장 등과 같은 직제들도 활용하고 있다. 다만 그 직제들이 성경적인 원리와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여성의 안수 및 강도권과 관련한 구절들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교회의 선택이다. 더 깊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리에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4) 여성안수 및 여성 강도권 제4연구

(유창형교수, 여성강도권과 여성안수에 대한 신학적 분석과 현실적 대안)

지금까지 우리 교단은 여성 사역자, 주로 전도사들에게 강도권을 정식으로 부여하지 않았고,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런 요구를 따라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신학부에게 위임되었다.

논자도 이 일을 신학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약에서 여성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으로 메시지를 받은 미리암과 사사였던 드보라, 선지자였던 홀다라고 할 수 있다.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들은 대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설교자였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자격이 분명한, 즉 정규신학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한 여전도사에게 강도권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에서는 브리스길라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한 아볼로에게 성령과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쳤다. 그리고 사도 중에 유머히 여겨졌던 유니아는 유명한 사도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비비아도 여성 사역자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마리아, 마르다 같은 여성들은 예수의 복음을 사도들에게 전파했다. 이를 단순히 전도로 본다면 오늘날 여성들의 전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일종의 설교로 본다면 여성 강도권이 가능할 것이다.

여성 안수에 관해서는 장로나 감독의 선출 규정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이라는 명료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논자는 반대한다.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담임목사는 남성이 되는 것이 합당하고 교회 사역에서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현실적인 문제를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중 하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 선교사, 특히 홀로 사역하는 여성 선교사들에게 성례권과 축도권을 허락한 부분과 주일학교에서 이미 설교를 담당하고 여성 교육전도사들, 구역예배에서 설교하는 권사들이나 여전도사들, 때때로 부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여성 전도사가 새벽예배나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미 여성사역자들에게 암묵적으로 강도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단지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만 여성사역자들에게 설교를 맡기기 않을 뿐이다.

보다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성군목이다. 여성군목을 국가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성선교사에게 설교권과 성례권을 부여했듯이 예외적인 규정으로 여성안수를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그냥 타교단에 맡기고 합동교단은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여성전도사가 개척을 하는 경우다. 개척한 여전도사는 분명 주일 낮 예배와 오전예배를 설교할 것이고, 나아가 성례와 축도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타교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본 교단에 머물러 있더라도, 목사 안수만 받지 않았지, 강도권은 스스로 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 담임전도사에게는 강도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선교사에게 예외 규정을 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여성 전도사에게 경력에 따라 사례비를 올려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여성 전도사도 강도사에 준하는 교육사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강도사고시를 통해서 강도사 인허를 주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남성 강도사는 목사가 된다는 의미에서 준목으로 칭하는 방법이 좋다고 본다.

5) 여성안수 및 여성 강도권 제5연구

(임종구 교수,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개혁신학의 입장-여성안수 논쟁사를 중심으로)

왜 여성안수와 강도권 부여는 허락할 수 없는가?

1. 여성안수운동의 방향이 성경 무오성 포기, 여성안수채택, 동성애허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웨인 그룹은 평등주의자들이 성경에서 명시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를 ‘최소화’ 하려는 시도가 오늘날의 ‘동성애 허용’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물론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동성애에 반대한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결정할 때 성을 배제하게 되면 결국 ‘부부가 누구인가?’를 결정할 때도 성을 배제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안수’를 허용한 교단들이 결국에는 ‘동성애’도 허용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교단들은 대개의 경우 가장 먼저 성경의 무오성에서 이탈하고 다음으로 여성목사안수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는 동성애허용의 수순을 밟아왔다.

미국장로교회(PCUSA)

190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정(보편구원론도입) (NPC)

1924년 오번선언(성경영감과 권위반대-성경무오성포기)

1956년 여성안수채택

2011년 동성애 허용

미국기독교개혁교회(CRC)

1974년 성경무오성 포기

1995년 여성안수채택

세계교회협의회(WCC)

1948년 성경무오포기

1975년 여성안수채택

2013년 동성애 반대 불인정(WCC부산총회)

2. 개혁주의는 실용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개혁주의신학노선의 교회가 실용주의의 요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유럽과 북미의 교회들이 걸어온 길을 추적하면 대체로 실용주의를 선택하고 개혁주의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문제의 발단은 대개 신학교에서 시작되었다. 화란의 경우 화란국개개혁교회(NHK)는 1932년에 신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에게 설교연습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목사보조사(Hulppredikerschap)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47년에 교회보조사역자개념으로 발전하고 1966년에 여성안수에 이르렀다. 예장백석 역시 여성강도사를 허락한 후 여성목사안수로 이동되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선교, 교육등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매우 현실성 있는 요청이 있을 때 실용주의를 선택하기 쉽다. 이미 예장합동은 실용주의노선을 따르고 있다. 여성선교사 성례권 허용 결정과 함께 여성강도사허용, 여성강도권부여, 여군목 허용과 같은 현의안들이 대기상태이기 때문이다.



3. 여성안수허용은 교단 100년의 역사성, 전통성, 보수성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여성안수를 허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907년과 1912년의 독노회와 조선장로교총회의 신앙고백과 신조, 헌법을 포기함으로써 일순간에 교단의 역사성, 전통성, 보수성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예정합동교단의 교단정체성은 신학적 보수성에 있다. 그 신학적 보수성의 가장 대표적인 메타포가 바로 여성안수이다. 한국의 장교회에서 여성안수는 보수성과 진보성을 결정하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4. 여성안수허용은 세계개혁교단(WRF)들과의 연합에서 제명되는 것이다.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가 성경무오성을 폐기하고 1995년에 여성안수를 결정하자 북미개혁장로교회연합인 네파(NAPARC)는 즉시 CRC의 회원권을 정지시켰다. 또한 2019년 네덜란드 해방파가 여성안수를 결정하자, ICRC도 즉시 회원제명을 시켰다.

5. 여성안수허용은 목사와 장로의 임직서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본 교단의 모든 목사와 장로는 지난 105년간 동일한 임직서약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여성안수는 100년 교단역사가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임직서약을 파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예정통합은 여성안수허용 이후에 교단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단의 신앙고백서와 신조, 요리문답을 모두 바꾸었다. 뿐만 아니라 임직식 순서와 서약문도 모두 교체하였다. 여성안수가 얼마나 교단의 모든 것을 폐기하고 변경하도록 하는가를 우리는 예정통합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단 내의 여성지위향상위원회는 여성사역자들의 사역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과 여성사역자들의 복지와 사역환경을 개선하는 범위에서 활동해야 할 것이다. 가령 강도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여성강도사의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교단의 신학과 정체성과는 역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군목과 같은 문제나 여성선교사 성례권 문제도 더 이상 실용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효과적인 사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예정합동의 100년의 신학과 역사성, 전통성을 고려할 때 여성안수문제 연구는 제24회 총회에서 박형룡박사가 초안한 5인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단이 명시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그리고 교단 헌법에 의거 여성안수를 불허함이 타당하다. 또한 한시적으로 허용한 여성선교사 성례권도 허락된 기한이 경과하면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며, 여성강도권과 여성강도사, 여성군목도 허락하지 아니함이 교단의 신학과 정체성에 일치하는 결정이 될 것이다.

2. 퀴어신학의 ‘이단성’ 혹은 ‘퀴어신학은 이단이다’로 선포해달라는 헌의 건

1) 퀴어신학 제1연구.

(황선우 교수, 구약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퀴어신학의 구약해석 비판)

구약성경에 동성애를 언급한 본문은 창세기 19장 1-11절,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신명

기 23장 17-18절, 사사기 19장 16-30절, 열왕기상 14장 22-24절, 15장 11-12절, 22장 43-46절, 열왕기하 23장 7절, 욥기 36편 13-14절, 에스겔 16장 48-50절이다. 이 본문들에 대한 퀴어신학의 구약해석을 잘 보여주는 책은 2006년에 발간된 *The Queer Bible Commentary*로서 이 책은 Deryn Guest 외 세 명의 퀴어신학자들이 편집하였고 다수의 퀴어신학자들이 참여하여 구약과 신약 66권에 관해 주석한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위의 동성애 관련 구약본문들이 동성애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해설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하여 본문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퀴어신학자들의 주요 논지를 비판하였다.

구약성경은 동성애에 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이고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매우 무거운 죄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로 기록되어 있다. 동성애와 관련한 구약의 첫 번째 본문인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죄와 관련하여 퀴어신학에서는 소돔 사람들과 같은 강제적인 성폭력이 아닌 동의하에 이뤄지는 동성애는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죄를 해설하는 에스겔 16장 50절과 유다서 7절을 고려할 때 소돔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동성애를 제외하고 논하기 어렵다. 퀴어신학에서는 구약의 동성애 금지명령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신약에서도 동성애를 부끄러운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또한 퀴어신학에서 구약의 동성애 금지명령이 남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자 동성애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여자 동성애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와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남자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동성애 금지명령을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을 읽는 것은 오독에 불과하다.

퀴어신학에서는 구약에서 가증하며 개혁의 대상으로 일컬어지는 카데쉬(남창)의 성적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카데쉬에 상응하는 여성형 명상 케데사가 창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경 번역과 같이 카데쉬를 남창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퀴어신학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동성애일 것이라 주장하며 동성애의 성경적 토대를 마련하려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기사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임을 말해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사사기 19장에는 창세기 19장의 소돔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동성애 내러티브가 있다. 타락의 상징 도시 소돔과 타락한 시대의 상징인 사사시대에 비슷한 동성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한 사회의 타락과 동성애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약에서 타락의 상징이며 죄 중에서도 가증한 죄로 기록된 동성애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 퀴어해석의 오류가 있다.

2) 퀴어신학 제2연구.

(이풍인교수, 신약성경에서 본 동성애)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로마서 1:26-27절, 고린도전서 6:9절 그리고 디모테전서 1:10절에서 동성애에 대해 다룬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구절들에 등장하는 바울의 반(反) 동성애적인 입장을 그 당시에 국한된 것으로 치부하거나 바울이 동성애를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쪽으로 설명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바울은 오늘날 본성적으로 동성애를 타고 난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가 없었다.
2. 바울 당시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같은 계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 지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바울의 주장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기에 따를 필요가 없다.
3. 로마서 1:26-27절에서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 다루는 것을 확대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29-32절의 죄의 목록은 바울이 다른 자료를 단순히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4. 로마서 1:26절에서 사용된 파라(παρά)는 ‘contrary to’의 의미가 아니라 ‘beyond’의 의미를 지녀서, 파라 피신(παρὰ φύσιν)은 ‘against nature’(역리)가 아니라 ‘beyond nature’(본성 너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5. 바울은 이상승배로서의 동성애에 대해 지적하고 있기에, 오늘날 기독교인이면서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6. 바울의 동성애에 대한 비난은 당시 성인 남성과 미소년 사이에 있었던 남색(pederasty)에 국한된다.
7. 바울은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 ‘부정한(unclean) 것’으로 여기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의식적인 정결(ritual cleanness)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동성애를 금하지 않았다.
8. 로마서 1:18-31절은 후대 첨가된 것으로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親) 동성애적인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 반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로마서 1:18-31절은 후대 첨가라고 주장하지만, 오래 된 사본들에서 이 구절들이 누락된 경우가 없다.
2. 로마서 1:26-32절에 등장하는 악행을 다룰 때 바울은 29절에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와 같은 4개의 -ια로 끝나는 단어(ἀδικία πονηρία πλεονεξία κακία)들과 31절에서 ἀ로 시작하는 네 단어들(ἀσυνέτους ἀσυνθέτους ἀστόργους ἀνελεήμονας;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을 통해 숨겨 있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3. 바울은 로마서 1:26절에서 먼저 여성 간의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고, 1:27절로 넘어가며 ‘이와 같이(호모이오스, ὁμοίως)’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남성 간의 동성애로 확장시키고 있다. 바울은 여성 간의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만연했던 남성 간의 동성애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함으로써 그의 논증을 점층적으로 펼치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동성애의 특정한 양상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순리’와 ‘역리’의 구분은 바울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플라톤에 대한 언급에 이미 등장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바울 이전에 ‘순리’와 ‘역리’라는 표현으로 이성애와 동성애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동성애에 대해 말한다. 이 구절들에 사용된 μαλακοί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남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ἀρσενικοὶ οἷται는 남자들 사이의 동성애 관계에서 ‘적극적인 입장에 있는 남자’를 의미한다.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다루라고 권면한다.

바울은 결코 동성애의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는 분명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바울이 동성애와 관련된 긴 논문을 쓰거나 그의 편지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적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바울의 상황은 로마 세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바울의 전 생애를 살펴볼 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삶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답게 사는 것은 일차적인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다. 물론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삶의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룬다. 그렇다고 동성애를 떼어 설명하기에는 그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로 인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성애는 분명히 죄요, 성도들이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3) 퀴어신학 제3연구.

(이상원교수, 퀴어 신학의 이단성)

퀴어 신학은 개인윤리적인 차원, 사회윤리적인 차원, 그리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모두 지금까지 등장한 어떤 신학체계 보다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퀴어 신학은 개인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창1:27:2:24)와 보편적 규범(레 18:22:20:13)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원리 곧,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으로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성관계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적 장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인류의 성윤리질서를 전복시키고 인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결혼과 가족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

퀴어 신학은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 프로이드의 성해방개념과 마르크스주의의 혁명 전략을 접목시켜 진리의 왜곡, 정치적 선동과 선전, 언론과 교육과 법조계의 장악 등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전략을 총동원하여 현존하는 사회구조를 전복시키고 동성애를 비롯한 일탈된 성행위를 아무런 규범적 통제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무규범적인 성해방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퀴어 신학이 개인윤리적인 차원과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만으로는 이단으로 단죄할 수가 없다. 이단으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독교교리와 삶의 원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기독교의 정체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퀴어 신학은 핵심적인 기독교교리와 삶의 원리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성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왜곡된 외설적 해석을 자행함으로써 이단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단성을 넘어서서 독신성까지도 드러낸다. 우선 퀴어 신학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양식을 피조물인 인간의 본질과 존재양식과 범신론적으로 동일시하는 신론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적 성향과 행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윤리적이고 일탈된 성적 성향과 행동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끌어 내리고 있다.

우선 퀴어 신학은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한 성적 존재로 묘사하되, 그것도 남성성과 여성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양성적이고 젠더적인 존재로 묘사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셋 안에서 자유롭게 성애를 나누는 난교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고, 창녀가 불특정한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탈된 성관계를 나누는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그리스도는 남성과의 성관계를 갖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등 외모에 있어서는 남성이셨지만 여성적인 특성을 이미 지닌 자웅동체가셨는데, 급기야는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리심으로써 여성의 자궁을 가지게 되심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시게 되었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완벽한 양성애자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완벽한 양성애자가 되신 예수님은 여성 신자들을 신부로 맞이할 때는 남성의 입장에서 맞이하며, 남성 신자들을 신부로 맞이할 때는 자궁을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 맞이하는 등 이성애와 이성혼과 동성애와 동성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재로 묘사된다. 신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양성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양성애자로 거듭나며, 동성애와 동성혼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퀴어 신학의 묘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질과 기독교의 정체성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이단이라고 단죄 받아야 한다. 퀴어 신학은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양식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다른 이단들이 감히 하지 못했던 독신적인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바, 곧, 하나님을 인간들의 성애 가운데



가장 부패하고 도착적인 일탈 된 성별 결정관행과 성행위 관행을 자행하는 외설적인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독신적인 죄를 범하기까지 하는 “신학적 쓰레기”와도 같은 신학이다.

3.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동성애 관련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의 건

1) 동성애 관련 소돔과 고모라 사건 제1연구.

(황선우 교수, 구약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퀴어신학의 구약해석 비판)

동성애에 관한 구약의 첫 번째 본문은 타락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소돔의 동성애를 기록한 창세기 19장 1-11절이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있는 소돔이 기록된 것을 볼 때 동성애의 시작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단어 ‘sodomy’도 바로 창세기 19장에 기원을 두고 있다.

창세기 19장 1-11절의 내용은 이렇다. 어느 날 사람의 모습(남자)으로 나타난 두 명의 천사가 소돔에 나타나자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한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자기 전에 소돔의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이 맞이한 두 남자를 내어 놓으라고 말한다. 이 때 그 집을 둘러싼 소돔의 백성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인 소돔인들이라고 기록한 것(창세기 19장 4절)은 소돔 땅에 동성애가 얼마나 편만하게 퍼져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개역개정에서 “소돔의 백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안쉐 쏘돔”으로, 직역하면 “소돔의 남자들”을 의미한다. 롯의 집을 둘러싼 소돔인들은 롯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세기 19장 5절).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로서 그 원뜻은 “알다”(know)인데 이 “야다”가 문맥에 따라 ‘성교’(intercourse) 혹은 ‘동침’을 의미할 수 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성교’의 의미로 쓰였다. 히브리어 “야다”가 ‘성교’ 혹은 ‘동침’의 의미로 쓰인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 4장 1절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에서 “동침하매”로 번역된 것이 바로 ‘알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야다”이다. 이러한 소돔 사람들의 악한 요구에 롯이 자신의 손님인 이 두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말하자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한다. 이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천사들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문 밖의 소돔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후 소돔 땅은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유향과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죄는 동성애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인가?

소돔인들이 롯에게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요구에 롯은 그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한다. Michael Carden은 이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성폭력과 합의하에 갖는 동성애를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즉, 폭력으로 강제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합의 하에 동성애를 나누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을 언급한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롯이 말한 소돔 사람들의 악은 단순히 집단 성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스겔 16장 49-50절에서 소돔의 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위 본문의 화자인 여호와와는 소돔의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

지 않는다. 창세기 19장 1-11절에서 기록한 소돔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소돔에 퍼져 있는 동성애와 소돔 남자들이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사람에게 강제적인 동성애를 요구한 것이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의 죄가 동성애와 강제적인 동성애 요구인데 여호와가 소돔의 죄를 나열하면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의 죄를 생략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므로 소돔의 “가증한 일”은 바로 동성애와 그와 관련된 죄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에바”인데 이 단어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 동성애를 지칭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토에바)이니라
(레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토에바)을 행함인즉 반 드시 죽일 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토아보트-토에바의 복수형)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왕상 14:24)

히브리어 “토에바”는 매우 강한 혐오(abhorrence, abomination)를 의미하는 단어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매우 혐오스러운 범죄임을 알려준다. 바로 이 “토에바”가 에스겔 16장 49-50절에서 소돔의 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따라서 소돔의 “가증한 일”을 동성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구약성경에서 히브리어 “토에바”가 동성애만을 지칭하는 가증함은 아니다. 가나안 신상(신 7:26), 부정결한 짐승(신 14:3), 악인의 제물(잠 21:27), 율법을 듣지 않고 드리는 기도(잠 28:9), 악행을 저지르면서 드리는 분향(사 1:13), 이웃의 아내와 음행(겔 22:11) 등 여러 가증한 일을 “토에바”로 지칭하였다. 더 선명하게 소돔의 죄가 동성애임을 말해 주는 구절은 신약 유다서 7절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의 의미는 정상적인 이성의 육체가 아닌 동성의 육체를 쫓는 것을 의미한다. 유다서 7절에서는 소돔의 음란한 동성애가 불의 형벌의 원인이었음을 말한다. 결국 소돔의 죄를 언급한 에스겔 16장 49-50절, 유다서 7절, 그리고 동성애를 “가증한 일”(토에바)로 일컫는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 열왕기상 14장 24절을 고려하면 창세기 19장 1-11절의 소돔의 죄는 단순히 강제적인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동성애 관련 소돔과 고모라 사건 제2연구. (이상원 교수,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멸망사건은 전통적으로 동성애 때문에 하나의 도시국가 전체가 멸망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이 받아 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 마음이 불편했던 친 동성애 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동성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



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로, 친 동성에 진영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그네를 환대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창세기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돔 성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친 동성에 진영에서는 창세기19장5절에 사용되는 동사 “야다”라는 히브리어의 주된 의미는 상대방과 친숙해지기 위하여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일반적으로 알아본다는 것을 뜻하며, 성관계를 의미하는 용례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창세기19장의 “야다”도 친숙해지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셋째로, 친 동성에 진영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에스겔서16장49절에 소돔의 죄목들 가운데 하나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하여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넷째로, 이들은 특히 이사야1장7절에서 17절까지에서 이사야가 소돔의 관원들에 빗대어 유다의 관원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 중에 선행을 하지 않은 것, 정의를 구하지 않은 것,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은 것,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은 것만 열거하고 있을 뿐, 동성애에 대한 언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곧 그 허점이 드러난다.

첫째로, 소돔성이 나그네로서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하셨는데(눅10:10-12; 마10:14-15), 그 이유는 적어도 소돔은 나그네로 소돔성에 들어온 천사들을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셨다.

둘째로, 우리말로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의 주된 용법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친숙해지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성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창세기19장의 문맥은 명확하게 “야다”가 성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본문에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 한 두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 이 표현은 “두 딸이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확하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동사가 5절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동사 “야다”이다. 이 구절에서는 명확히 성관계를 갖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셋째로, 친 동성애주의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사회적 불의 곧,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하나 때문에 멸망했다고 해석한다.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에스겔서16장49절과 50절이다. 49절을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50절은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특히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들에 빗대어 비판하면서 이들이 범한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죄들 중에 선행을 하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되어 있다. 친 동성애주의자들은 이 본문들을 근거로 하여 소돔 성을 멸망으로 이끈 죄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은 죄 하나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동성애주의자들은 49절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라는 어구와 50절에 있는 “가증한 일”을 동격으로 처리한다. 50절이 말하는 가증한 일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구문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49절과 50절은 소돔 성의 죄는 이 두 가지 말고도 더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9절과 50절은 네 가지 유형의 죄목들을 소돔 성의 죄목들로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죄목들은 모두 통합되어 있고, 동성애라는 최종점을 향하여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50절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들이 범한 또 하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었다. 50절이 말하는 “가증한 일”은 49절이 말하는 사회경제적인 죄와는 다른 종류의 죄이다.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는 “혐오스러운 일”로서 레위기18장22절과 20장13절에서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항문성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에스겔16장49절과 50절의 문맥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가증한 일”은 가난하고 궁핍한 죄와는 다른 죄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49절과 50절은 병렬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접속사 앞에 있는 내용(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과 접속사 뒤에 있는 내용(가증한 일)을 동격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본문은 소돔 멸망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 멸망사건을 레위기의 율법의 빛 안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넷째로, 친동성애주의자들은 이사야1장7-17절에서 이사야가 소돔의 관원들에 빗대어 유다의 관원들의 죄를 지적할 때 가난한 자 등을 확대하는 사회경제적 죄는 지적했지만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동성애가 소돔 성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그러나 유다서 7절은 소돔 성 멸망의 원인이 음란한 행동 때문이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간” 행동 때문이라고만 말할 뿐, 가난한 자를 확대한 죄를 거론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사루스)는 문맥상 “성적인 욕구”를 뜻합니다. “다른 육체”는 “다른 성적 욕구”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성애적인 욕구가 아닌 동성을 향한 욕구를 지칭합니다. 유다서7절은 소돔 성의 멸망이 동성애 때문임을 분명히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0절에서는 소돔 성의 멸망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함” 때문임을 분명히 한다. 무법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성애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동성애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함의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행동을 “더러운 정욕”이라고 강한 어조로 표현한 대상으로는 동성애가 가장 적절하다. 1세기의 철학자 필로와 역사가 요세푸스는 소돔과 고모라가 범한 죄들을 지적하면서 이 죄들 가운데 가장 크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죄는 동성애임을 분명히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소돔 성이 멸망한 죄의 핵심에는 동성애가 자리 잡고 있으며, 더욱이 롯의 집 대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은 명확하게 동성애 관련 사건이다.

4. 어린이 세례 받은 자의 성찬 참여에 관한 건

1) 어린이 세례받은 자의 성찬 참여 제1연구

(박응규 교수, 어린이 세례자의 성찬 참여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제언)

성찬이라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믿음을 장려하고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들이 신자들끼리의 교제도 강화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누가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 들어서 성례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 다수의 한국 장로교단들에서 어린이 세례자들의 성찬 참여를 지지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 성찬”으로 알려진 제도를 지지하는 자들에 의하면, 어린이 세례자들은 언약의



은혜 속에서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찬을 허락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한 어린이들에게 성찬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가 세례를 받거나, 믿는 부모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언약백성임을 인정하지 않은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만다. 성찬을 통해서 어린이 세례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의 몸이신 교회와의 하나 됨을 통한 귀한 영적인 유익들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시행했던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의 전통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에는 많은 논쟁과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분별력이 생긴 후에 주의 성찬을 받아야 할 필연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입교절차를 밟은 유아 세례자들과 어린이 세례자들이 성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후에, 부모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소속감도 강화될 것이고,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신앙적 유산도 깨닫고 물려받게 될 것이다. 어린이 세례자 대상자가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이므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한 후에 10세 전후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초대교회가 실시했던 “교육-세례-입교(신앙의 확증단계)-성만찬(공동체 축하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교회 안의 세대 간 신앙적 연대감을 돈독하게 할 것이며,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해야 할 선교적 사명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통해서 어린이 세례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재확인하고 선포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구원의 영적 축복들에 참여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확인하고 선포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의 은혜와 구원의 영적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은 성찬을 통하여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신자로 세워지도록 서로 도와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성찬의 실제적 효능이며 성찬의 구원론적 중요성과 의미를 더욱 되새길 수 있다.

특히 모든 면에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성례에 참여하면서 신앙의 형성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 세례자들의 성찬참여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지탱해주고 성장하게 하여주고, 그들로 그들이 성찬을 통하여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고, 세상 속에서 그 몸으로 살아갈 힘을 부여하게 해줄 것이다. 한국의 교회학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주일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이 갖는 예전적 위치이다. 어린이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방편임을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성만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게 하는 예배의 현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어린이 세례자들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어린이 세례받은 자의 성찬 참여 제2연구

(김광열교수, 어린이 성찬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본 교단 총회는 유아세례 이후 놓쳤던 세대들 즉 7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제 남겨진 문제는 그들에게 성찬도 허락할 것인가? 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요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찬은 성례(거룩한 예식)으로서 무분별하게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17-18세기 미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half-way covenant” 제도가 주는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건립한 청교도 1세대의 신실한 신앙인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 자녀들 중에는 부모와는 달리 명목상의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들

의 자녀들조차도 “언약백성”이라는 명분으로 자동적으로 유아세례를 주게 되면서 명목신자들이 더욱 증가하고, 결국 교회의 세속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종교개혁자 쾰링글리나 칼빈은 유아성찬이 유아세례와 다른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 칼빈은 고전11:26에서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분명한 신앙고백이 없는 유아에게는 성찬의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네바 교회 법령』에서도 어린이 성찬을 위해서 주일에 “정오교육”을 통한 분명한 신앙고백의 교육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했고, 그와 관련하여 치리조항까지 엄격히 새행할 것을 강조했다. 바빙크, 클라우니와 같은 화란과 미국의 개혁 신학자들도 성찬은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시행되는 유아세례와는 달리- “능동적 참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룡박사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인한 속죄를 믿으며”, “신앙의 증가와 성장을 갈망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참여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므로 어린이 세례자들을 일괄적으로 혹은 일정한 나이만을 임의적으로 기준 삼아 다 성찬에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반면에 성찬은 또한 “은혜의 방편”이므로 “참된” 어린이 신자에게는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 말씀과 함께 성찬은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수단인 것이다. 특히 칼빈이 가르치는 “영적, 실제적 입재설”의 가르침에서 볼 때, 성찬은 주의 은혜가 실제로 주어져서, 참여자에게 영적 자양분이 공급되는 예식인 것이다. 박형룡 박사도 그러한 차원에서 성찬의 효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회는 어린이 성도들에게도 기도, 말씀에 대한 강조 못지않게 성찬예식을 강조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참여하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이러한 두 번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린이 세례자들 중 참된 신자일 경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배제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수단들 중 하나를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칼빈과 함께 박형룡 박사도 성찬을 비중생자에게는 허락할 수 없지만,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이 있고 복음대로 살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에게는 허락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아니, 오히려 그런 연약한 신자는 성찬을 통해 영적 자양분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결국, 위의 두 가지 점들을 고려해볼 때 어린이 세례자들을 모두 일방적으로 성찬에 참여시키거나 무조건 모두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 참여**”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되, 선별하는 기준을 단순히 일정한 나이만으로 결정해선 안 되고,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관심이 있고, 복음으로 살기를 참으로 원하는 **참된 믿음의 어린이들을 선별하여 성찬에 참여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어린이 세례받은 자의 성찬 참여 제3연구

(심창섭교수, 유아 성찬 참여(Paedocommunion)에 대한 소고 -칼빈 pro or con?-)

교회사에서 유아성찬 참여의 기록은 3세기 이전에는 발견 되지 않는다. 3세기 이후 알렉산드리아의 키프리아누스와 칼타고의 어거스틴이 유아성찬참여를 언급한바 있고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유아성찬참여는 유아세례와 함께 교회의 공식 예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215년 라트란 종교회의에서 성찬 예전의 화체설이 확정되므로 유아들의 성찬참여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주류는 유아성찬참여를 허락지 아니했다. 칼빈은 유아들이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주를 먹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독’(毒)이라고 하였다. 개혁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유아성찬 참여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개혁교회 내에서 유아성찬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찬성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covenant) 백성이라는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를 성찬예전에 적용하므로 유아성찬 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고린도교회의 분쟁의 맥락에서 성찬식을 연합의 의미로 이해하므로 어린이 성찬참여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유월절에 어린이들이 참석했다는 역사적 근거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유아의 성찬참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바울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고전 11:29)이라는 말씀을 본문(text)의 의미에 충실하게 이해한다면 유아성찬참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찬 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유아성찬참여의 가능성을 제시하면 2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연령의 유아 성찬참여는 부적절하지만 성찬의 의미를 교육시킨 후 가능하다. 둘째 유아성찬참여가 예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 (adiaphora) 즉 본질과는 무관한 (indifferent)것으로 본다면 유아들의 성찬참여는 가능하다. 칼빈은 크리스찬의 자유에 관하여 다루면서 아디아포라(adiaphora) 즉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indifferent) 외형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크리스찬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다고 하였다. 특히 칼빈은 성찬예식에서 외형적인 것 즉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교회의 선택의 자유 함을 언급한다.

그러나 성찬행위의 외형적인 의식에 관한 한 믿는 자들이 그들의 손으로 그것을 취하든지, 그것을 그들 가운데 나누든지, 아니면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먹든지, 그들이 잔을 마신 후 집사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주든지, 빵은 유교병인지 무교병인지, 포도주는 붉은 포도주여야 하는지 흰 포도주여야 할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이며 교회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그러나 교단의 통일된 정책으로 실행하기보다 노회나 지교회의 결단으로 실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단에서 강요로 집행 할 경우 교단 분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세기 유아 세례 주장에 반대하여 재세례파(anabaptist)가 파생된 것처럼 유아 성찬 참여를 반대하는 반 유아성찬참여파(anapaedocommunionist)가 발생할 수 있다. 유아성찬참여 문제가 교단의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면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5.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중 어떤 것이 교단 신학에 적합한 것인가?

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관한 건

(박용규 교수, 아폴리나리우스주의(Appollinarianism) 기독교론과 그 문제점)

기독교론 논쟁은 초대교회에 오랫동안 공교회의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 논쟁 과정에서 등장한 이단 가운데 하나가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이단이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적 본성과 자신이 지니셨던 육신도 받지 않으셨으며 마리아는 단순히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받았을 뿐이다. 로고스가 인간 예수의 영(human soul)을 대신하였다고 이해함으로써 신-인(divine-human)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보다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God with human body)으로 이해한 것이다.

성육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요한 초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폴리나리우스는 인간의 영혼의 자리에 로고스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변호하려고 하려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결국 아폴리나리우스주의 기독교론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이런 아폴리나리우스주의 기독교론 문제는 초대교회에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삼위일체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아폴리나리우스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는 표현 역시 ‘인성을 지니신 신성’이라는 전형적인 아폴리나리우스 표현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들이 공기도 중에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운운 …”하는 기도를 곧잘 듣는다. 이것은 신성이 인성을 흡수한 것으로 성육신을 이해한 전형적인 아폴리나리우스 기독교론이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26장 2절에 보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었네”라는 찬송가 가사가 나온다. 이것은 전형적인 아폴리나리우스적인 성육신 이해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인성을 지니신 신성”의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위의 가사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서서 참사람이 되셨네”라는 가사로 바꾸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찬송가 122장에 나오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는 가사도 “여호와와의 말씀이 성육신 하여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라는 가사로 바꾸어야 한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폴리나리우스주의 기독교론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라는 표현은 ‘인간이 되시고’라고 수정되어야 한다. 찬송가 122장과 126장의 가사도 위에 있는 대로 수정되어야 한다.

6. 『개역 개정판 성경』 시편 16편 10절에 관한 해석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번역이 될 수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헌의의 건

(김희석 교수, 개역개정판 성경의 시편 16편 10절 번역에 대한 검토)

본 연구는 제104회 총회에 헌의된 남광주노회와 전남제일노회의 헌의안에 대하여 신학부로부터 수임을 받아 진행되었다. 두 헌의안은 모두 시 16:10 하반기 개역한글판에 “씩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로 번역된 원문을 개역개정판이 “떨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로 번역했기에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번역이 될 수 있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 16:10의 번역 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 원문자료를 살펴보았다. 첫째, 개역한글에서 ‘씩음’이라 번역했으나 개역개정에서는 ‘떨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하트>(tx:v;)의 어휘적 의미에 대하여 구약성경의 용례들 및 한글번역의 실례들을 살피고 평가하였다. <샤하트>는 구덩이, 죽음, 무덤, 사망, 멸망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의미 범주를 가지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번역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단어가 구약성경에 사용된 23회의 용례를 살펴보았다(욥 9:31; 17:14; 33:18, 22, 24, 28, 30; 시 7:16; 9:16; 16:10; 30:10; 35:7; 49:10; 55:24; 94:13; 103:4; 잠 26:27; 사 38:17; 51:14; 겔 19:4, 8; 28:8; 욥 2:7). 둘째, 시 16:10이 신약 사도행전에서 인용되었을 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폈다. 구약성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계시의 종말론적 완성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 16:10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연결시켜 인용하고 있는 행 2:27-32 및 행 13:34-39에서 <샤하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디아프포라>(diapqora)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히브리 원문을 기초로 직역을 하면 '주의 거룩한 자가 <사하트>를 보도록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도가 된다. 여기서 '사하트를 본다'는 어구는 '죽다' 정도로 번역하면 일단은 충분하다. 이 때 죽음은 육체가 부패하여 썩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썩다'로도 번역할 수 있다. 둘째,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서 시 16:10을 인용한 경우들을 살펴보면, '죽다' 및 '썩다'의 번역이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사도행전 2장 및 13장은 시 16:10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고 서술하고 있고, 이 때 <사하트>의 헬라어 번역인 <디아프트라>는 단순한 육체의 죽음 혹은 육체의 부패과정을 모두 의미할 수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게 되셨고 또한 육체의 부패 과정을 겪지 않으시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번역은 '주의 거룩한 자로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의안의 질의 내용인 개역개정 시 16:10 번역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첫째, 멸망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어휘번역으로서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연구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하트>를 '멸망'이나 '파멸'로 번역한 용례들이 시 55:24(한글 시 55:23) 및 시 103:4에 존재하며, 이 때 '멸망'이나 '파멸'의 번역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 16:10에서 사용된 명사 <사하트>는 동사 <사하트>와 동일한 어근을 가졌는데, 동사 <사하트>는 '멸망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그러나 개역개정 시 16:10 번역은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이미 설명한 것처럼 명사 '사하트'를 이렇듯 동사 어구로 번역한 경우는 개역개정 내에서도 시 16:10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하도록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도로 번역을 했더라면 개역개정 내에서의 번역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원문을 직역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 '멸망시키다'라는 번역은 어휘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신약과의 조화를 생각한다면 그리 적절하지는 않다. 개역개정 사도행전 2장과 13장은 시 16:10을 인용할 때 '썩음을 당하다'라고 번역했다. 그러므로 개역개정의 시 16:10도 사도행전 2장 및 13장의 경우와 같이 '썩음을 당하다'로 번역을 했더라면 구약과 신약의 인용관계에 있어서 일관되게도 명확한 번역이 가능했을 것이다. 혹은 시 16편 및 행 2장, 13장에 모두 '죽다'라고 번역을 했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굳이 시 16:10에서 '죽다'도 아니고 '썩다'도 아닌 '멸망시키다'를 선택했다. '멸망'이라는 어휘가 '죽음'이나 '육체의 썩음'을 배제하지는 않기에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인하여 육체의 죽음/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게 됨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멸망'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이기에 시 16:10에 그리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시 16:10은 사도행전 2장과 1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인용되고 있는 본문이기에, '멸망'의 개념보다는 '육체적 죽음'의 개념 혹은 '육체의 부패과정 즉 썩음'의 개념을 번역에 담는 것이 시 16:10이 성경 전체에서 갖게 되는 의미를 드러내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16:10 원문의 '사하트를 보다'라는 어구는 '멸망하다' 대신 '죽다' 혹은 '썩다'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역개정의 시 16:10 번역은 정경적, 신학적 고려는 거의 없이 어휘의 의미범주만 고려한 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하려는 의도로 조금 지나친 의역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리하면, 개역개정의 시 16:10 번역은 어휘의미상에서는 적절하나, 문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으며, 정경적/신학적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하는 번역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히 설명해주는 번역인 것은 아니라 하겠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KOREAN BIBLE SOCIETY
137-863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5-16
Tel: (02)2103-8700 Fax: (02)2103-8896

대성공: 번2020-1

2019. 11. 6.

수 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참 조: 신학부장

제 목: “개역개정성경 오역 관련 질의 및 답변의 건”(예장총 제104-99호)에 관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귀 총회에서 본 공회로 이첩한 “개역개정성경 오역 관련 질의 및 답변의 건”(예장총 제104-99호)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귀 교단 총회에서 파송한 대표(배제민 목사)를 포함하여 각 교단, 구세군대한본영,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2,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정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개역개정판 개정위원”들의 개정 결과를 가감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 총회의 질의를 받고 성경 번역 문제를 취급하는 본 공회 성경번역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질의하신 『개역개정판』 성경의 시편 16편 10절의 번역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자료 별첨).

본 공회로 보내 주신 의견은 자료로 보관하여, 추후 새로운 성경의 번역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김 동 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개역개정성경 오역 관련 질의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설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개역개정성경 오역 관련 질의 및 답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제일노회의 "개역개정성경 오역 개정 현의의 건-시편 16편 10절의 번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문서번호 제104-99호)

개역개정 시 16: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개역한글 시 16: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지금까지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낸 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의 사업에 함께하는 여러 교단에서 파송한 학자들이 함께 모여 오랜 시간에 걸쳐 기도하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또 그 결과를 각 교단의 여러 목회자님들에게 보여 의견을 모아 번역하거나 개정한 성경입니다.

1. 이미 개역한글판을 오래 읽어 온 독자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개역개정판에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는 그것이 단순한 오자이거나 탈자가 아닌 한, 그 나름대로 상당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2. 시편 16편 10절 하반절 개역한글판의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와 개역개정판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가 달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원어가 구약에서 쓰이는 여러 경우(아래 5에서 자세히 다룹니다.)와 시편 16편 10절의 문맥을 살펴보면(아래 4.5)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실제로는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의 번역이 다른 것은 원어의 한 가지 낱말(이 경우에는 <사함>)을 우리말로 해석하는 여러 가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역자나 개정자는 원어 한 낱말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를 골라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개역개정 위원들이 개역한글판과 다른 표현으로 바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 원어나 그 뿌리가 되는 낱말이 구약에서 주로 쓰이는 쓰임새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 보통은 이 원어 <사함>을 명사로 씁니다. 그렇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동사

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에서는 동사로 보았거나, 명사로 보았으면서도 그 앞에 나오는 다른 표현과 한데 묶어 동사처럼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2) 명사로 볼 경우에 개역한글판에서 이 원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5.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 이 원어 <샤핫>의 뿌리가 되는 동사(히브리어에서는 자음이 지나는 뜻이 중요합니다.)의 본뜻은 '망하다'/'망하게 하다', '못쓰게 되다'/'못쓰게 하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무엇보다도 '멸하다'와 '씩다'가 중요한 번역어로 등장합니다. 개역한글판은 '씩다'를, 개역개정판에서는 '멸하다'를 골라, 글의 흐름에 맞추어 각각 '씩게 하다'와 '멸망시키다'로 번역했습니다.

4) 개역개정판에서는, 구약 전체에서 이 동사가 쓰이는 용례를 살펴볼 때 '멸하다'가 중심을 이룬다는 사실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6.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멸하다'의 뜻을 좀 더 분명히 하려고 '멸망시키다'라는 번역어를 쓴 듯합니다.

5) 또 글의 흐름과 원어 문장의 표현 방식으로 보면 '씩지 않게 하신다'와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가 실제로는 같은 뜻을 지닙니다.

(1) 시편 16편의 첫머리에서 밝히는 바를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고백하며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2) 시편에서는 상반절에서 말한 것을 하반절에서 비슷한 낱말들을 써서 실제로는 같은 뜻을 거듭 말하는 수가 많습니다. 10절 하반절도 상반절에서 말한 것을 비슷한 낱말들을 써서 다시 한 번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한글판 번역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나란히 적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상반절의 '내 영혼'과 하반절의 '주의 거룩한 자'는 짝을 이루면서 실제로는 같은 대상, 곧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 상반절의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표현과 후반절의 '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표현은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게 하지[죽어서 썩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을 거듭 고



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번역을 같은 방식으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상반절의 '내 영혼'과 하반절의 '주의 거룩한 자', 또 상반절의 '스올에 버리지 아니 하'실 것이라는 표현과 후반절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표현은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나를[다윗을] 죽어서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두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나중에 신약의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13장 3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시편 16편 10절 하반절의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새롭게 풀이합니다.

(4) 그런데 신약성경은 옛 그리스말로 적혀 있고,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보통 옛 그리스어 번역본('칠십인역')을 씁니다. 이 번역본은 주전 3세기 경부터 수백 년에 걸쳐 생겨난 세계 최초의 구약성경 번역본으로, 종교개혁 이전까지 1500여 년 동안 기독교회에서 구약성경으로 써 오던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사함>을 옛 그리스어 번역 성경에서는 <디아프토라>라고 옮겨 놓았습니다. <디아프토라>는 한편으로는 '멸망', '파멸'을 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 '썩음'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과 13장 35절에서는, 그리스어로만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이 구약 원래의 문맥과 표현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다윗을 멸망, 파멸시키지 않으실 것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시편 16편 10절을 이해하도록[입도록], '부패', '썩음'의 뜻으로 쓰이는 낱말 <디아프토라>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개역개정판에서 이 두 구절의 <디아프토라>를 '썩음'이라고 번역한 개역한글판의 번역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것도 이런 흐름을 그대로 알고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구약 시편 16편 10절의 <사함>은 구약 원래의 흐름을 따라 '멸망'을 뜻하는 말로 바꾸어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칠십인역의 최신 현대 서양어 번역본(2009년 독일성서공회 번역본)에서는 이 <디아프토라>를 '멸망'으로 번역하고 각주에다가 '썩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두었는데, 이도 구약 원래의 흐름을 따라 번역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5) 이리하여 개역개정판이 시편 16편 10절에서 '썩음'이나 '썩다'라는 번역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말이라고 하기는 힘들습니다. 구약의 어떤 부분을 신약에서 인용하여 썼다 하더라도, 구약 본문은 구약

원문의 흐름, 또 구약 원어의 쓰임새와 표현 방식에 맞추어 옮기고, 신약에서 구약을 새롭게 풀이하여 새로운 뜻으로 쓴 것은 그에 맞는[어울리는] 그리스어로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사핫>을 명사로 볼 경우에 개역한글판에서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역한글판 시편에서는 명사 <사핫>을 다음 일곱 가지로 옮겨 놓았습니다.

- (1) '함정'(7:15)
- (2) '웅덩이'(9:15; 35:7)
- (3) '구덩이'(94:13)
- (4) '무덤'(30:9)
- (5) '씩지'(16:10)
- (6) '씩음'(49:9)
- (7) '파멸'(55:23; 103:4)

이 가운데서 (5) 16:10의 경우에는 '씩음'이라고 해야 하지만,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씩지'로 되었습니다. 16:10의 <사핫>은 동사 '보다'의 목적어입니다. 이 동사와 <사핫>을 한데 묶어 적역하면 '씩음을 보다'가 됩니다. (6) 49:9와 비슷합니다.

2) 처음 네 번역어('함정', '웅덩이', '구덩이', '무덤')는 뜻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번역어('씩지', '씩음', '파멸')는 앞의 네 경우와 뜻이 달라 보입니다.

3) 개역한글판의 시편 아닌 다른 여러 책에서도 이런 번역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 '함정'(잠 26:27; 겔 19:4, 8)
- (2) '구덩이'(욥 33:18, 22, 24, 28, 30; 사 38:17; 51:14; 겔 28:8; 욥 2:6)
- (3) '무덤'(욥 17:14)
- (4) <사핫>을 욥 9:31에서는 '개천'으로 옮겨 놓기도 했습니다.

4) 개역한글판에서 한 원어 낱말을 이렇게 여덟 가지로나 서로 다르게 옮겨 놓은 것은 글의 흐름에 따라 그 낱말이 뜻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덟 가지 번역어를 한데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함정', '웅덩이', '구덩이', '무덤'은 결국 땅에 파 놓은 것이고, 한 번 거기에 빠지면 살아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사핫>은 실제로는 '죽음'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멸'에 이르고, 그렇게 있다 보면 '씩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 9:31의 '개천'도 같은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원어 <샤핫>을 동사로 이해할 경우에도 개역한글판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문법 형태로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각 경우의 번역도 명사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몇 가지 중요한 번역어만 보기 삼아 들어 보겠습니다.

1) 개역한글판 시편에서는 동사 <샤핫>의 여러 형태를 다음 세 가지로 옮겨 놓았습니다.

- ① '부패하다'(14:1; 53:1)
- ② '멸하다'(78:38; 106:23)
- ③ '해하다'(78:45)

2) 이 세 가지 번역어가 개역한글판에서는 시편 아닌 여러 책에도 나옵니다.

- ① '부패하다'(출 32:7; 신 4:16, 25; 31:29; 사 1:4; 겔 16:47; 23:11)
- ② '멸하다'(창 9:11, 15; 13:10; 18:28, 31, 32; 19:13, 29; 신 4:31; 9:26; 10:10; 수 22:33; 사 6:4, 5; 삼상 23:10; 삼하 11:1; 20:20; 24:16; 왕하 8:19; 13:23; 18:25; 대상 21:12, 15; 대하 12:7; 21:7; 25:16; 35:21; 사 36:10; 37:12; 51:13; 65:8; 렘 4:7; 13:14; 15:3; 36:29; 49:9; 51:11, 20; 겔 5:16; 9:8; 20:17; 22:30; 30:11; 43:3; 단 8:24; 호 11:9; 말 3:11).

③ '해하다'는 명사형 '해함'(사 65:25)과 '해됨'(사 11:9)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샤핫>의 뿌리로 볼 수 있는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샤핫>의 뿌리로 볼 수 있는 동사의 여러 형태를 개역한글판에서는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이 아주 다양하게 옮겨 놓았습니다.

- ④ '멸망시키다'(민 32:15; 렘 51:1)
- ⑤ '멸절하다'(창 6:17; 대하 24:23)
- ⑥ '진멸하다'(사 20:42)
- ⑦ '박멸하다'(렘 11:19)
- ⑧ '훼파하다'(대상 20:1; 대하 36:19; 렘 5:10; 12:10; 애 2:5, 6, 8; 겔 26:4)
- ⑨ '파하다'(렘 48:18)
- ⑩ '파괴하다'(사 54:16)
- ⑪ '파상하다'(렘 18:4)
- ⑫ '상하다'(출 21:26)
- ⑬ '죽이다'(삼하 1:14; 14:11; 사 20:35; 삼상 26:9, 15)
- ⑭ '폐망하다'(호 13:9)

- ⑮ '패망케 하다'(단 11:17)
- ⑯ '헐다'(렘 6:5)
- ⑰ '헐어버리다'(대하 34:11)
- ⑱ '손상하다'(레 19:27)
- ⑲ '작별하다'(신 20:19, 20)
- ⑳ '사악하다'(렘 6:28)
- ㉑ '폐괴하다'(창 6:11, 12; 호 9:9; 사 2:19)
- ㉒ '씩게 하다'(렘 13:9) 등.

이처럼 22가지나 되는 개역한글판의 번역어를 통틀어 보면, <사함>의 뿌리로 볼 수 있는 동사도 구약에서는 주로 '멀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대한성서공회 번역실



수임 안건 신학부 최종보고

1. 여성 강도권(여성안수)에 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 건

성경에 여성안수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언급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성안수에 관한 우리교단의 입장에 대한 신학부의 의견은 우리교단이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대로 여성안수는 불가하다. 연구자들도 거의 대부분 여성안수에 관하여는 ‘여성안수 불가’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여성 강도권은 디모데전서 2:8-15절, 디모데전서 3:1-7절, 고린도전서 14:34-35절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두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명령으로 해석하여 여성에게도 가르치는 사역을 맡길 수 있다고 보는 관점과 문자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여성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즉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명령으로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여성의 강도권에 관하여(허락할 것인가? 허락하지 말 것인가?), 연구자들은 분명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강도권의 문제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강도권에 관한 분명한 정의와 정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한 성경학자들의 깊은 주경학적, 사본학적, 원어적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신학부는 여성 강도권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연장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현재까지 우리 교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 사역자의 가르치는 사역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우리 교단 산하 교회에서 해온 것처럼(헌법대로) 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 퀴어신학의 ‘이단성’ 연구 혹은 ‘퀴어신학은 이단이다’ 라고 선포해달라는 헌의의 건

퀴어신학은 동성애 옹호라는 대단히 잘못된 전제와 성경해석으로 인해 심각하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이단 신학이다. 또한 퀴어신학은 우리 교단이 가르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우리 교단 장로교 헌법에서 명백하게 동성애를 전면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동성애를 토대로 형성된 퀴어신학은 명백히 이단이며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퀴어신학을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추종하거나 가르치는 자들과 단체들은 이단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3.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관한 동성애 관련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의 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관한 동성애 관련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는 소돔의 죄는 명백하게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소돔의 죄를 단순히 강제적인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환대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았고, 사회적 불의 곧,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만 해석하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핵심에는 반드시 동성애 죄가 있음을 명백하게 가르쳐야 하며, 담임목사와 당회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동성애 내용을 제거하고 가르치는 해석들과 강론들은 주의깊게 살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대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4. 어린이 세례 받은 자의 성찬 참여에 관한 건

우리 교단 헌법은 어린이 세례를 명백하게 허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례받은 어린이들의 성찬 참여에 관한 건은 어떻게 시행해야 할 것인가? 연구자들의 내용을 보면 성찬은 주님의 대속적 죽음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이며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무분별하게 성찬을 허락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성찬을 베풀기 보다는, 적어도 10세 이상의 어린이들 가운데 철저한 신앙교육(성찬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하에 성찬 참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데 유아세례 받은 자(만6세까지)는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의식을 통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유아세례를 받지 못하고, 어린이 세례를 받은 10세 이상 세례 받은 자들에게 성찬을 허락하게 되면 제도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세례받은 자의 성찬 참여는 헌법대로**(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하는 것이 가하다 할 것이다.

5. ‘말씀이 육신을 입어’ 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중 어떤 것이 교단 신학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 관한 건

‘말씀이 육신을 입어’가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으로 보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찬송가 126장 2절에 보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참사람이 되셨네**”라는 가사로 바꾸는 것이 명확한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찬송가 12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는 가사도 “여호와의 말씀이 **성육신 하여**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라는 가사로 바꾸는 것이 명확하다. 이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아폴리나리우스주의 기독교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라는 표현은 ‘인간이 되시고’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개혁주의 신학적 해석이다. 찬송가 122장과 126장의 가사도 위에 있는 대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6. 『개역 개정판 성경』 시편 16편 10절에 관한 해석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번역이 될 수 있어 수정해야 한다는 헌의의 건

개역 개정의 시편 16:10절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라고 한 번역은 어휘 의미상으로는 가능한 번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번역은 완벽한 번역은 아니며 정경적/신학적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연구자의 의견대로 차라리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하도록 내어주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정도로 번역을 했더라면 개역개정 내에서의 번역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원문을 직역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번역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번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목회자가 이 구절을 해설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잘 연계하여 교인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총회재판국의 교리재판은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하여 재판기로 해달라는 헌의의 건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교리재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하여 재판해 달라는 헌의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어떤 사건은 사안에 따라 존각을 다투는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자칫 신학부의 해석이 재판에 영향을 주어 신학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어떤 것들은 연구결과에 따른 상반된 시각의 차이에 따라 재판에 혼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의 교리재판은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신학부에 의뢰하여 그 해석에 근거해서 재판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총회재판국 자체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를 선정하여 이를 근거로 진행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재판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 신학 문제는 반드시 신학부가 먼저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본회에 보고한 후 결정하는 헌의의 건

일 년에 한 번 모이는 본 교단 총회에 신학적인 문제가 현의되었거나 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신학부에 의뢰하여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고 차기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연구할 시간을 주어 본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을 지키고 구축해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9. “뉴스앤조이”에 대한 총회의 신학적 연구 및 강력 대응에 대한 헌의의 건

‘뉴스앤조이’는 언론이다. 그런데 이 언론에 실리는 글들이나 논문들은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에 부합되는 글들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뉴스앤조이의 기사들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등을 지지하는 듯한 내용들이 다소 많이 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는 반한다. 기고자들 역시 우리 교단의 소속의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매우 드물다. 이런 연유로 오늘까지 기고된 뉴스앤조이의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뉴스앤조이는 진보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언론이라 간주할 수는 있다. 그러나 뉴스앤조이는 기사에 대한 반론 보도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뉴스앤조이가 어떤 특정 신학이나 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쉽게 규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뉴스앤조이에 대하여 우리 교단 뿐만아니라 타교단(합신, 고신 등)에서도 연구 조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개별 기사와 보도에 대하여 신중하게 분별하여 성도들을 지도하는 일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뉴스앤조이’에 대한 강력 대응은 신학부보다는 우리 교단의 반기독교 대책위원회나 생태계 위원회가 있으므로 거기에 맡겨 처리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교단 교회나 평신도들의 뉴스앤조이에 대한 구독과 지원에 관하여는 기사와 내용을 살펴본 후에 개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신학부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신학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내용
 - 1) 개혁주의신학대회
 - 2) 신학연구세미나
 - 3) 총회 수입 안건 연구 및 자료집 제작
2. 예산 총 5,000만원
 - 1) 회의비 ; 1,500만원
 - 2) 연구비 ; 2,500만원
 - 3) 자료집 제작비 ; 신학부 연구자료를 총대들에게 배부할 제작비 ; 1,000만원
3. 신학연구위원회 구성 청원
 - 취지 : 신학부는 교단의 신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학부 안에 신학연구위원들을 위촉하여 상시적으로 구성하려고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성 강도권에 대한 연구, 연장 청원
 - 취지: 여성 강도권에 관한 개혁주의 신학에 충실한 성경학자들의 깊이 있는 주경학적, 사본학적, 원어적 연구가 더 필요하기에 연구 연장 청원을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표방하는 선언문 작성 청원
 - 취지: 전 세계에서 개혁신학의 보루인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표방하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명확하게 선포함으로써, 전 세계에 성경에 근거한 개혁주의 신학을 드높이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기에 이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총회 성경표준주석 편찬 및 발간을 위한 청원의 건
 - 취지: 21세기 복잡하고 다양한 신학 사조 속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분명하게 천명한 총회 성경 표준 주석 편찬과 발간을 위해 신학부가 주도적으로 (타당성 조사 연구, 조직 및, 편찬위원 선정 등)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장 고창덕
서기 신종철